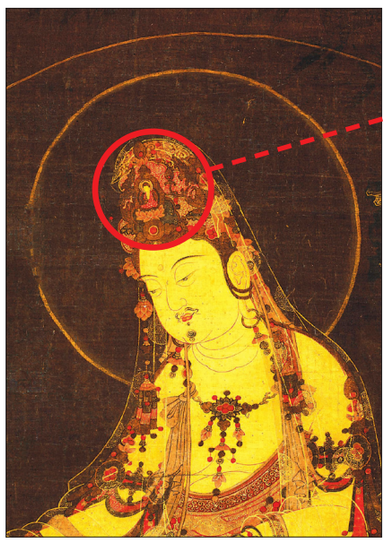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⑳ 〈수월관음도〉



▶ 한줄 요약
현존하는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45점에는 공통점이 있다. 관음보살의 보관에 아미타불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음보살을 장엄하는 천의, 서기 등이 그냥 장식물이 아니라 관음보살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보관 속 아미타불도 관음보살이 곧 '청정자비'을 보여준다.

관음보살 보관엔 왜 아미타불 있을까

관음보살(또는 관세음보살)의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寶冠)' 이 있다.(그림①) 보관은 '보배로운 관' 을 말한다. 그리고 관음보살의 보관에는 항상 '아미타불' 이 있다. 고려시대 수월관음의 경우에도, 보관 한 가운데에 붉은 법의를 입고 있는 아미타 좌불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②) '붉은 법의의 아미타 좌불(坐佛)' , 이는 현존하는 고려시대 수월관음도 45점 모두를 관통하는 공통되는 특징이다. 꼭 붉은 색깔 법의에 좌불 형식이 아니더라도, '보관 속 아미타불' 은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관음보살상의 필수불가결 도상(圖像)이다. 아니, 보관에 아미타불이 없으면 관음보살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 그 이유는 무얼까? '보관 속 아미타불' 의 까닭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보살은 왜 화려하게 장엄(莊嚴)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결하고 가자.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일본 담산신사에 소장된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상반신.

그림②. 〈수월관음도〉의 보관 속 아미타불을 확대한 모습. 보관, 천의 등 관음보살을 장엄하는 것들은 모두 관음보살 그 자체다. 관음보살은 곧 청정자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극락정토에 이를 수 있다.

관세음보살 화려한 보관에는
항상 아미타부처가 상주중인
〈수월관음도〉도상 공통 특징

서기 · 정병 등 관음보살 자체
세상 맑히는 에너지를 상징해

'보살'은 왜 화려하게 장엄하나?

다양한 보살들(지장보살을 제외하고)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장엄된다. 보관은 여의주(보배 구슬) · 연꽃 · 서기(상서로운 기운) · 보상화 등으로 꾸며진다. 많은 보살 중에 지장보살만 보관이 없는 이유는 지난 연재18 · 19회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머리에 쓴 보관은 매우 높고, 입고 있는 천의(天衣: 하늘 옷)는 아주 다채롭고, 걸치고 있는 온갖 장신구는 영롱하기 그지없다. 우리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살의 장엄에서 만난다. 그러면, 보살은 왜 이렇게 화려한가? 보살은 어째서 이토록 아름다운가? 그 이유는 보살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을 장엄하는 존재' 이기 때문이다. '보살은 어째서 아름다운가' 라는 질문은 '세상은 어째서 아름다운가' 와 똑같은 질문으로 보면 되겠다. 아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로 해석하면 되겠다. 경전 상의 표현으로는 '세상을 증장(增長)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중생을 검은 번뇌로부터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데,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나를 살리고 있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세상을 치유하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로 보면 되겠다.

보살이 보관을 '쓰고' 있고, 천의를 '입고' 있고, 장신구를 '걸치고' 있는 것으로, 안 보이기 시작하면, '불교미술을 보는 눈' 이 열렸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보살의 몸체 그 자체가, 대표 대승경전들에 구구절절 말하고 있듯, '삼라만상을 안팎으로 장엄하는 에너지'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살의 몸체 자체가 여여(如如)한 화엄(華嚴) 세계이자, 청정한 극락정토이다. 법계가 변화무쌍하게 연기(緣起)하는 풍광인 것이다. 그러한 몸체에서 다시 끝 간 줄 모르고 나오는 장엄연기(莊嚴緣起)의 분출! 즉, 보살의 몸체에서 무궁무진하게 솟구쳐 나오는 서기(瑞氣)를 보관 · 천의 · 장신구의 형태를 빌려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방대한 〈화엄경〉 전권을 관통해 서술된 보살십지(菩薩十地)의 장엄한 풍경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무량한 선행 공덕의 과보로 받은 몸체가 이토록 광활하고도 깊단 말인가. 나는 기껏 인도(人道, 육도윤회 중에 인간세계)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아, 업장의 바닷 속을 헤매고 있지 않은가. 〈화엄경〉뿐만 아니라 〈무량수경〉 및 〈관무량수경〉 등에도 중중무진 펼쳐지는 선업(또는 청정업) 세계, 극락의 풍광을 과연 어떻게 그림으로 담을 것인가? 우리의 선조 화승(畵僧, 불화를 그리는 전문 스님)들은 이것을 한 폭의 불화에, 한 구(軀)의 보살에, 절묘하게 담아냈던 것이다.

관음보살, '나를 맑히는 淸淨 에너지'

'보살은 왜 화려하고 장엄하는가' 라는 근본 의미를 살폈다. 다음은 그러한 장엄 중에 관음보살 보관의 특징, '관음보살 보관에는 왜 항상 아미타불이 있는가' 에 대해 알아보자. 관음보살과 아미타불은 무슨 관계이기에 항상 같이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관음보살을 만나야 한다. 어떻게 만나는가. 나를 맑히면 만나게 된다. 번뇌 업장으로부터 나를 맑히는 작업을 '수행' 이라고 한다. 중생은 스스로의 업장으로 오염되어 있지만, 본인이 오염되어 있는 줄 모르고 윤회를 계속한다. 윤회의 패턴은 매일 매일이자 세세생생을 같은 도돌이를 한다. 업력(業力)에 평생을 휘둘려 살면서도 정작 본인은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무지 속에 있다. 여기에 오욕(五欲, 색욕 · 식욕 · 수면욕 · 재물욕 · 명예욕)까지 소용돌이치면 꼼짝없는 고통이다. 업력은 자신의 무의식적 행동 패턴을 말한다. 고착화된 감정과 생각의 흐름이다. 이것을 자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수행은 필수겠다. 이 자각하는 힘을 '반야지혜' 라고 하고, 자신의 업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 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를 맑히느냐. 물론 석가모니 붓다께서 그 방법을 펼치셨다. 그 시작은 사마타 수행이다. 사마타는 선정(禪定)이라고 하는데, 한 대상에 집중하여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불교 초기 당시, 붓다께서 직접 밝히신 사마타의 대상은 40가지가 있으나, 현재 잘 알려진 호흡 관찰 · 염불 · 화두 참구 등 모두 좋다. 조용한 곳에서 장기적 수행의 여건이 안되고 또 고통이 극심하여 한시가 급한 분들에게는, 단기간 집중하기 좋은 화두 참구를 권해 드린다. 이때는 물론 전문 법사의 지도가 꼭 필요하다.

화두에 집중하여 끊임없이 요동치는 흙탕물(번뇌)을 어느 정도 막고 있는 기간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그 분(관음보살)이 온다. 강렬한 청정에너지가 불덩이처럼 일어나 돌기 시작한다. 이것을 '기(氣)가 돈다' 또는 '기혈이 뚫렸다'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에너지가 몸 구석구석을 섬광처럼 돌면서 아픔이 뭉친 곳을 뻥 뚫어준다. 고질적으로 아팠던 무릎도, 죽어도 안 풀리던 오십견도, 환절기마다 달고 살았던 비염도, 순간 거짓말처럼 다 사라진다. "아! 관세음보살님이 오셨구나"라고 직감하게 된다. 한순간에 몸속 쓰레기를 싹 청소해준다. 그 신비한 경험도 잠시, 다음엔 더 기막힌 순서가 기다린다. 몸이 정화됨과 동시에 삼매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간다. 아미타불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야 왜 관음보살이 '극락(아미타불)의 안내자' 라고 일컬어지는지, 체득하게 되는 순간이다.

수월관음의 키워드, '청정 · 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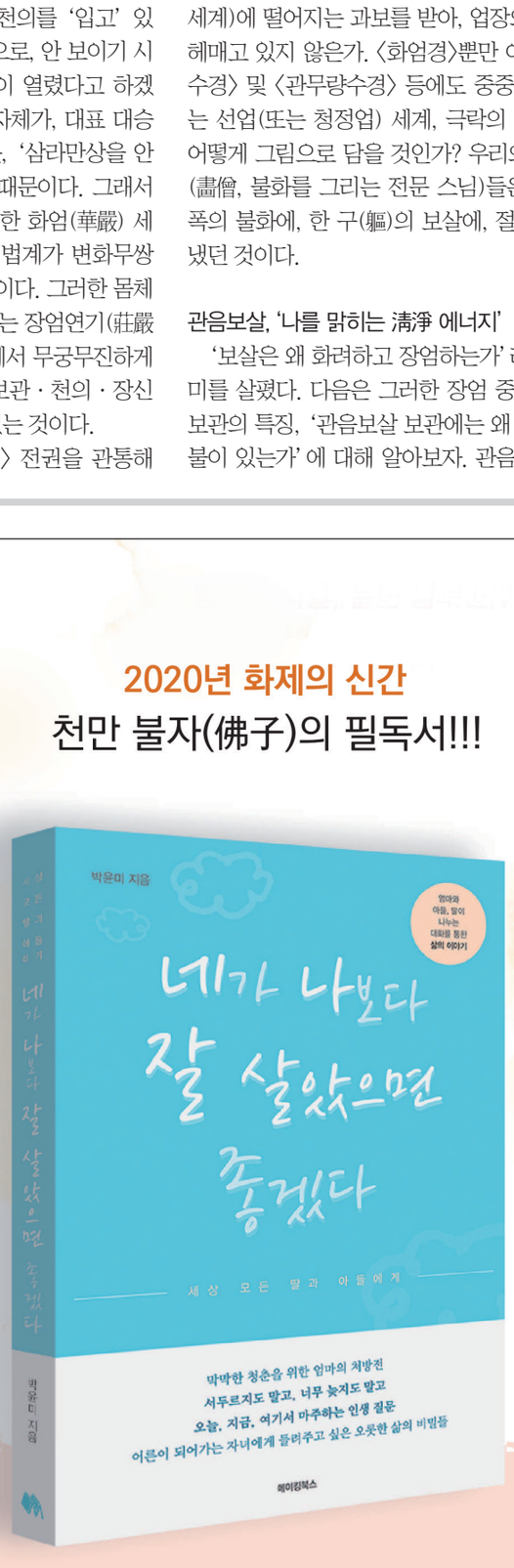
관음보살을 만나야, 그 다음으로 아미타불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순차적 진리' 이기에, 이 같은 도상(관음보살 보관 속의 아미타불)이 불교의 창시 이래 수천 년의 세월에 걸쳐 변함없이 내려왔던 것이다.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먼저, 사마타 수행으로 마음을 정화한다. (2) 그것이 어느 정도 수위에 차면 물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심적 변화가 몸이라는 물질적 변화로 전환하는 시점에 물꼬를 트듯 강렬한 청정에너지(관세음보살)가 돈다. (3)몸이 정화(淨化)되니, 다음 순서는 무량광(無量光, 무량한 지혜의 빛이란 뜻으로 아미타불을 가르킨다) 속으로 빠져든다. '(1)사마타 수행 → (2)관세음보살 → (3)아미타불' 의 유기적인 진행이 일어나는 것이다.

업장를 정화시키는 청정 에너지! 그래서 관음보살 조형적 특징 및 도상들은 모두 '청정' 이라는 키워드로 수렴된다. 정병(淨甁), 버드나무 가지(楊枝), 맑은 시냇물, 선재동자 등은 〈수월관음도〉를 특정하는 필수적 도상학적 요소들인데, 이들 요소들은 모두 '청정(淸淨)' 이라는 기능과 상징으로 그 뜻이 모아진다. 정병은 감로병이고, 여기에는 감로수가 들어있다. '감로병(甘露甁) 속의 법의 물(法水) 향기롭구나/어두운 마귀 구름 씻어버리고 상서로운 기운(瑞氣) 살리며/뜨거운 번뇌를 소멸케 하고 청량함을 얻게 하네(甘露甁中法水香 灑濯魔雲生瑞氣 消除熱惱獲淸凉)' 라는 '쇄수게(灑水偈)' 의 내용처럼, 정병의 감로수는 번뇌를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 1급수의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버드나무의 가지 '맑혀주는 기능' 을 한다.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는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그 즙으로 상처와 염증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였다. 또 부드러운 줄기는 입을 청결하게 하는 칫솔 대용으로도 상용되었었다.

〈수월관음도〉 속에서 관음보살을 올려다보고 있는 선재동자. 보살의 길을 간절히 묻는 선재동자에게 관세음보살은 "맑고 깨끗하기가 마치 허공과 같구나!"라고 칭찬하는 대목이 〈화엄경〉 '입법계품' 에 전한다. '관음보살은 청정자비(淸淨慈悲)' 라는 정의가 〈화엄경〉 및 〈무량수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청정한 자비의 힘' 으로 우리는 극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2020년 화제의 신간
천만 불자(佛子)의 필독서!!!



세상 모든 딸과 아들에게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와 아들, 딸이 나누는 삶의 이야기

불자로서, 어머니로서, 청춘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부모님께는 자녀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줄 힘을 드립니다.

이 책 한권으로 부처님 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 겠다
박윤미 지음 | 220쪽 | 14,8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